大韓國人
安重根

Ahn Jung geun

Ahn Junggeun
Memorial Museum
Magazine

2021 Vol. 51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표지 이야기

평화를 사랑한 선각자 안중근

평화를 바라지 않는 이가 있을까요?
하얼빈의거는 오로지 힘이 지배하던 세상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쏘아 올린 세 발의 총성은
강자의 탐욕에 대한 경고이자,
평화로 향하는 눈부신 신호탄이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자 하는 안 의사의 의지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그의 염원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힘차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大韓國人
安重根

발행일 2021년 7월
발행처 (사)안중근의사숭모회 · 안중근의사기념관
발행인 이 사 장 김황식
편집인 기념관장 유영렬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차고(02-6485-2580)

『大韓國人 安重根』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지킵니다.

Contents

04 여는 글

06 프롤로그

하나,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라.**

08 하나의 역할

11 하나의 꿈

14 하나의 길

하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20 안중근이 지나온 길

22 안중근의 가족들

28 안중근의 사람들

32 그곳에 가면

하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38 도마를 기리다

40 도마를 따르다

43 기념관 돋보기

46 주요 소식

50 도마의 서

52 후원해 주신 분들

54 안중근사랑 회원 가입신청서

32 38

안중근의사의 유언, 동양평화사상이 널리 펼쳐지도록 만들어야!

김황식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제41대 국무총리

나는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는다.
그러니 오직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각자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유지를 계승하여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가 유한이 없을 것이다.

- 안중근의사가 2천만 동포에게 남긴 유언 중

나라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한 결단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안중근의사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던 교육자였으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민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문무를 겸비한 선비이자,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적 과제 앞에 홀연히 온몸을 내던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안 의사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 평화의 파괴자이자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하고 이듬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향년 31살. 너무도 젊은 나이였지만 삶에 대한 미련 대신,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하나뿐인 목숨보다 중요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

'내가 해야만 하는 할 일은 무엇인가?'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막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국정을 보는 위정자들은 의견을 합치하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알력 싸움에 휘말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정국을 통찰한 안중근의사는 '나라의 자주적 독립과 더불어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동양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중근의사의 굳은 신념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 의사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설파한 위대한 경세가였습니다. 마침내 뤼순감옥에서 태동한 안중근의사의 정신은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일깨워 정의와 평화에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 정신이야말로 민족의 도약을 이끌어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를 계승해 동양평화 정신 실현해야

'안중근의사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안중근의사 순국은 11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독립된 조국에서 형제자매와 같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바라며 먼 타향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안중근의사. 이제 우리는 그가 꿈꾸던 독립된 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등극해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안중근의사의 유언에서와 같이 '각자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을 가슴에 묻은 우리들에게는 과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안 의사의 '평화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동양평화 정신이야말로 인류의 공생과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핵심 동력이었으며 민족의 도약을 이끌어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의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전 세계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숙명입니다.

영웅의 후예답게 세계적 고난 극복에 앞장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110여 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에 당당히 맞섰듯 우리는 한 해를 넘긴 코로나19의 위협에도 잘 대처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의료진의 놀라운 헌신과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책임감 덕분에 우리는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최대 고비에 직면했습니다. 안 의사의 가르침처럼, 국난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 동참'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여줬던 국민들의 협조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확고한 방역지침을 세우고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국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버팀목이 돼줘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현재, 안중근의사의 뜨거운 의기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동력 삼아 하루빨리 예전의 지구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겨레의 이름으로 불의不義를 쏘았다

- 안중근의사 순국 111주기 추모 헌시獻詩

김 후 란 (시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그날 하늘을 찌를 듯 크게 울린
세 발의 총소리
우리는 들었다 온 겨레 가슴으로 들었다

1909년 10월 26일 아침 중국 하얼빈 역에서
우리의 한국의군韓國義軍 안중근 참모중장
짓밟힌 국권회복을 위하여
동양평화를 위하여
겨레의 이름으로 불의를 쏘았다
5천년 역사 짓밟고
우리 땅에 진흙 발 드리민 자 누구인가
흰옷 입은 순한 백성의 손에
정의의 권총 들게 한 자 누구인가

칠흑 어둠의 세상이었다
고통의 압제에 짓눌려 신음하며
길 잃은 백성들 정처 없이 헤맬 때
내 한몸 바쳐 대한의 자주성 되찾는다면
두려울게 무언가 주저할게 무언가
연마해온 사격술로 침탈의 왜장 쓰러뜨리고
꼬레아 우라 ! 대한 만세 ! 세 차례 피맺힌 외침
세상은 요동치고 큰 산이 움직였다
민족의 자긍심에 불을 붙였다

뤼순감옥 다섯 달 동안 초연히 붓을 들어
자서전과 동양평화론 집필하시고
법정에서 당당한 목소리로
일본의 죄상 낱낱이 열거하시니
그 기개에 눌려 서둘러 사형 선고되었다

장하다 나라 위해 한 일이니
당당히 죽음 받아들이라 이르신 초극의 어머니
그 어머니 눈물로 보낸 명주옷 입으시고
이국땅 형무소에서 1910년 3월 26일
사형대로 가시며 안 의사 남기신 말씀
"나 천국에 가서도 대한독립 위해 기도하다가
독립 소식 들리면 춤을 추리라 춤을 추리라"
그 유언 온 백성 가슴에
뜨겁게 뜨겁게 메아리 졌다

자주독립 굳건한 산맥으로 일어서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기뻐하소서 안중근의사님
천국에서 기뻐하소서

하나,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라.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동맹과 일제의 식민통치,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제국의 위기 속에서
오직 조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정의를 부르짖었던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08 하나의 역할
11 하나의 꿈
14 하나의 길

안중근을 말하다

안중근의사의 '애국계몽운동'을 아십니까?

글 **유영렬**(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안중근의사,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요하며 한국의 외교권을 탈취하자 한반도에서는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됐다. 전통 유생들은 "일본의 침략으로 국가가 멸망지경에 이르렀으니 성패를 불문하고 '즉각 결전'을 통해 '즉시 독립'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군을 상대로 의병투쟁을 주도했다. 한편 근대 지식인들은 "실력이 부족해 국권의 일부를 상실했기에 지식과 경제 등 실력의 양성이 국권회복의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실력양성운동, 즉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26세의 안중근의사는 일본이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을 위해 러시아와 싸운다는 선전을 믿었기 때문에 개전 당시 러·일 전쟁을 '의전(義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러·일전쟁과 동시에 일본이 한국을 침공하고 을사조약을 강제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자 그는 일본의 침략행위가 러시아보다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고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안 의사는 항일의병으로는 막강한 일본군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외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 청국의 산동과 상해로 건너가 한국인 유력자들에게 항일투쟁을 권유했다. 그러나 한국인 유력자들은 냉담했고 호응하지 않았다. 실망한 그는 상해 천주교성당

앞에서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프랑스인 르각 신부를 만났다. 르각 신부는 안 의사의 항일운동 계획을 듣고, 프랑스의 애국지사들이 알자스와 로렌 두 지역을 비웠다가 결국 그 두 지역을 독일에게 빼앗긴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며, 한국의 애국지사들은 나라를 비우지 말고 국내에서 실력양성운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 의사는 르각 신부의 권고에 공감해 실력양성운동을 결심하고 귀국했다.

안중근의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다

귀국 후 안중근의사는 실력양성의 방안으로 교육운동을 구상했다. 안 의사는 평소 교육을 통한 문명개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1897년 천주교 세례를 받은 뒤 서양의 선진 문명사회를 알게 됐으며, 천주교 전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의 문명개화와 천주교 전도를 위해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1900년경 안 의사는 뮈텔 주교를 찾아가 천주교대학의 설립을 건의했다. 뮈텔 주교는 "만일 학문이 있게 되면 교(敎)를 믿는 일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대학 설립을 반대했다. 이에 안 의사는 "교의 진리는 믿을지언정 외국인의 심정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해 프랑스어를 배우던 것도 중단했다. 사실상 안 의사는 한국에서 대학 설립을 실제로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안중근의사는 청국에서 돌아온 뒤 학교 설립에 착수했다. 그리고 1906년, 사재를 털어 두 동생과 함께 진남포에 삼흥학교를 설립했다. 이어 진남포성당 소속 학교로서 운영이 어려워 폐교 상태에 있던 돈의학교를 인수해 교사를 확장하고 교원과 학생을 증원했다. 이처럼 안 의사는 2개의 학교를 경영하며 교육운동에 힘썼다. 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1910년 순국을 앞두고 "우리들 이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해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라고 동포에게 쓴 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안 의사의 유묵은 그가 얼마나 교육을 중요시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안중근의사의 교육이념은 삼흥(三興)정신

안중근의사는 교육구국을 위해 삼흥학교를 설립했다. 안 의사가 설립한 삼흥학교의 교명은 그의 교육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삼흥(三興)은 '국흥(國興)', '민흥(民興)', '사흥(士興)'의 세 가지를 이른다.

첫째로 국흥(國興)은 나라를 흥성케 하자는 것이다. 대한제국 말기, 국가의 독립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시기에 안 의사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항일투쟁을 전개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국내진공작전에 패해 10여 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산중에서 피신할 때, 미국의 독립을 위해 수년간 전쟁터에서 고초를 겪은 '워싱턴'을 흠모하며 뒷날 일이 성취되면 미국에 가서 워싱턴을 추모하겠다고 했다. 곧 안 의사의 국흥정신(國興精神)은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둘째로 민흥(民興)은 백성을 흥성케 하자는 것이다. 안 의사는 탐학한 관리들에게 억압·착취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염원했으며 국가란 '관인의 국가가 아니고 국민의 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검사의 신문에서는 "나는 3천만 동포를 위해 헌신하려는 자이며 황실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곧 안 의사의 민흥정신(民興情神)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었다.

셋째로 사흥(士興)은 선비를 흥성케 하자는 것이다. 그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학인·학자·지식인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식의 향상을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계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안중근의사는 가산을 털어 2개의 학교를 경영하며 교육구국운동에 힘썼으며, 순국 전 동포에 대한 유언에서도 교육구국을 강조했다. 곧 안 의사의 사흥정신(士興情神)은 지식인을 양성하고, 국민을 개화·문명화시키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중근의사, 경제적 구국운동을 전개하다

안 의사는 국민교육과 더불어 민족경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민족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미곡상을 운영했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무연탄 회사인 삼합회도 운영했으나, 일본 상인들의 방해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일본은 한국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한제국 정부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국채 1,300만 원을 물려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고자 했다. 이에 1907년 서상돈, 김광제, 양기탁의 주도하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안 의사는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를 조직하고,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신문에는 안 의사의 모친과 부인, 제수가 패물을 내놓았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삼흥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다.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안 의사의 솔선수범에 감동해 관서지방에서 국채보상운동이 크게 활성화됐다. 국채보상운동은 90년 뒤 1997년 IMF 때 전국민금모으기운동의 본보기가 됐다.

안중근의사, 동포계몽운동을 전개하다

안중근의사는 계몽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그는 1907년 연해주로 망명한 뒤에 청년회에 가담해 계몽활동을 했으며 『해조신문』에 기고해 동포들의 애국심과 단합을 강조했다. 또한 항일의군을 모집하기 위해 연해주 한인마을들을 순회하며 폴란드 망국민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의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연추의군의 우영장으로서 국내진공작전을 앞두고, "한 번의 의거(義擧)로서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열 번, 백 번, 십 년, 백 년, 손자 대에 가서라도 대한국의 독립을 회복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요컨대 안중근의사는 1905년 일본의 불법적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뒤 독립운동에 투신해 각종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그 후 1907년 일본에 의한 고종황제의 폐위와 한국군대의 해산을 계기로, 1908년 연해주에서 독립군을 조직해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1909년에는 한국독립을 유린하고 동양평화를 파괴한 이토 히로부미를 주살하는 항일의혈투쟁을 행한 것이다. 결국 안 의사는 뤼순 법정에서 당당하게 항일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의연하게 순국해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됐다.

기서(寄書) : 인심단합론

『해조신문』에 실린 것으로 익히 알려진 「기서」는 안중근의사가 「안응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민족의 단합'을 향한 절실한 바람을 담고 있다. 하얼빈의거 이전 연해주에서 활동하며 시작된 그의 인심단합 사상을 추적해 살펴본다.

글 **오영섭**(안중근의사숭모회 연구위원)

안중근의사의 「인심단합론」, 『해조신문』 제21호(1908년 3월 8일자)

연해주 한인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단초로

군대 해산에 반발한 대한제국군이 남대문 근처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1907년 8월 1일. 이날 한·일 양국군의 전투를 지켜본 안중근의사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해외 망명길에 올랐다. 안 의사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원산(元山)에 도착한 후 걸어서 함경도를 가로질러 9월 10일경 간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미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헌병과 경찰을 파견해 간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강화해가고 있었다. 활로를 모색하던 그는 10월 말경 간도와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갔다.

연해주에는 고종 초년부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온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한제국의 집권층과 애국지사들은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최대 최후 근거지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인적·물적 자원이 연해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 안 의사와 그의 지인이나 동지들이 연해주를 독립운동의 신천지로 간주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1907년 10월 말부터 1908년 3월 중순까지 안중근의사는 남한 면적의 1.65배에 달하는 연해주 각지를 돌아다니며 애국활동을 벌였다. 그는 동포들에게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위태로운 현실을 설명하면서 애국사상을 고취하고

교육을 강조하는 연설을 펼쳤으며, 의병운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블라디보스토크의 청년회에 가담해 단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던 시절 연해주 한인사회에는 분열과 갈등이 심했다. 일찍이 연해주로 들어와 러시아 국민으로 편입된 원호민들과 을사늑약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로 건너온 독립운동가 간에, 교육과 산업을 중시하는 계몽운동가와 무장투쟁을 우선시하는 의병운동가 간에, 황제체제를 옹호하는 군권주의자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중시하는 민권주의자 간의 분열과 갈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연해주 한인사회의 내홍이 깊어가던 1908년 3월 21일 안 의사는 『해조신문』에 「기서(寄書)」라는 제목의 짧은 논설을 기고했다. 「기서」는 연해주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인심단합론을 역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창간 직후부터 연해주 한인사회의 단결과 단합을 촉구해온 『해조신문』의 발간방침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었다. 『해조신문』은 연해주 동남단의 대도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간된 순한글 신문이자 연해주 한인사회의 최초 신문이었다. 아울러 안중근은 「기서」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서울에서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에 기고하고, 이러한 국민담합론으로 전 국민을 고동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전자는 『해조신문』에 수록돼 있고, 후자는 박은식이 한문으로 지은 『안중근전』에 나와 있다.

> 안중근의사는 연해주 동포들이 단합을 이뤄내야만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중근의사의 당시 시국에 대한 생각이 명명히 드러난 「기서」

『해조신문』은 창간 1주일째 되던 1908년 2월 4일 「강동에 거류하는 우리 동포들 생각하여 보시엄」이라는 논설을 실었다. 이는 "한인들이 단체 사상이 없기 때문에 애국정신이 박약해 오늘날 나라를 잃는 슬픈 지경에 빠졌다"며 한인사회에 불화를 중단하고 단합을 촉구한 논설이다. 이후 『해조신문』은 「단체 합하는 것이 제일 문제」 등 여러 차례 논설을 통해 한인사회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논설이 『해조신문』에 보도되자 연해주 한인사회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원호민 중 유력자이자 계몽운동가인 김학만과 김치삼 등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해조신문』에 한인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안 의사의 「기서」는 이들의 기고문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기서」에서 그는 "『해조신문』 논설에 인심이 단합해야 국권을 흥복하겠다는 구절을 읽고 감복했다"고 했다. 이어 『동몽선습(童蒙先習)』을 인용해 인간이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알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단언한 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기를 단합하는 것이며, 둘째로 자기 집을 단합하는 것이며, 셋째로 자기 국가를 단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부모처자가 화합해야 집이 존재하고 국민상하가 상합해야 국가가 보전된다고 봤다.

또한 그는 대한제국이 참혹한 지경에 이른 원인에 대해 다름 아닌 교만병 때문이라고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촌(카레이스카야 슬라보드카라고 불리던 블라디보스토크 개척리, 안중근의사가 망명 후 구국투쟁을 벌이던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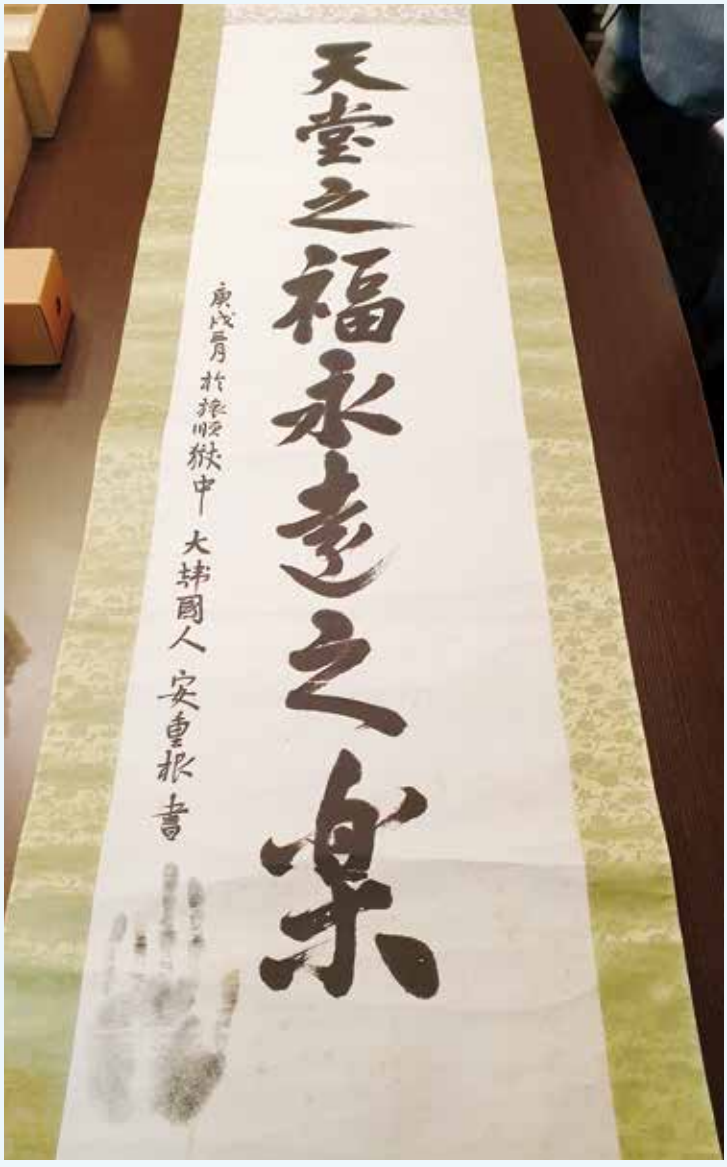
했다. 따라서 교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겸손을 만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겸손하게 되면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자기의 공을 타인에게 돌려서 서로 감화하며 단합된 국가가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안중근의사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하나는 쉽게 꺾을 수 있지만 한 묶음은 꺾기 어렵다"는 '회초리 묶음 이야기'를 인용해 국민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동포들이 불합한 탓으로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겼다"며 "연해주 동포들은 오늘부터 불합을 타파하고 단합을 시급히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기서」는 안 의사가 하얼빈의거 이전에 연해주에서 인심단합을 외치며 지은 애국논설이다. 이 글은 하얼빈의거 이전 안중근의사의 현실 인식과 시국 대책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을 보면 첫째, 안중근의사는 대한제국 멸망 원인과 연해주 한인사회의 문제점이 국민들 간의 불합에 있다고 파악하고 시급히 국민단합을 이뤄야만 일제를 물리치고 국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다. 둘째,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을 단결로 보고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교만으로 보았던 옥중 논설 「동양평화론」의 중요 내용을 하얼빈의거 이전에 지은 「기서」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었다. 셋째, 『해조신문』에 「기서」를 기고해 안 의사 자신의 생각과 이름을 널리 알림으로써 연해주 한인사회에 자기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지도급 인사로 점차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대(代)를 이은 안중근 사랑

안중근의사의 인품은 뤼순 옥중에서 적국의 간수 치바 도시치(千葉十七)에게까지 큰 감명을 주었다. 나아가 이는 안 의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치바의 처조카 가노 타쿠미(鹿野琢見)에게로 그리고 다시 그의 장남 가노 겐(鹿野元)으로 계승됐다. 필자가 기념관에 근무하며 만나게 된 가노 부자의 대를 이은 안중근 사랑을 소개한다.

글 **이혜균**(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가노 가문으로부터 수증된
안중근의사 유묵

가노 가문과 인연

1997년 3월, 입사 후 처음으로 맞이한 안중근의사 순국 행사에는 언론을 통해서만 봤던 각계각층의 기관장을 비롯해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열리는 100여 평 전시실에는 안 의사를 기리고자 하는 면면으로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처음으로 인사를 나눈 도회적이고 스마트한 인상의 가노 타쿠미 변호사는 안 의사 조카 며느리 박태정 여사에게 예의를 다하며 "한국에서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상함이 느껴졌다. 이날 참석한 일본인 중에는 사이토 타이겐(齋藤泰彦) 대림사 주지와 나카노 야스오(中野泰雄) 전 일본 아세아대 교수도 있었다. 이들은 20여 년 전부터 매년 안 의사 순국 및 의거 행사에 참석해 왔다고 했다.

가노 타쿠미와 안중근의사의 만남

가노 타쿠미 변호사는 1919년 일본 미야기현 구리하라 출생으로, 뤼순감옥에 수감된 안중근의사의 간수였던 치바 도시치의 처조카였다. 이모부 치바는 어린 조카를 곧잘 무릎에 앉혀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가끔은 뤼순에서 만난 안중근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청년이 되면서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임을 알고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모부는 안중근의 강직한 성품과 평화에 대한 희구, 나라사랑 정신과 자국민에 대한 애정은 존경받아 마땅하므로 안중근의 정신을 닮고 배우도록 노력하라 일렀다. 그러한 이모부의 진정한 모습에서 어느새 마음에 자리한 안중근의사를 이해하고 흠모하게 됐다.

도호쿠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가노는 자식이 없던 이모 부부를 이어 안중근의사를 선양하는 일에 앞장선다. 일본인으로서 안중근의사를 존경하게 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가노는 안 의사 같은 위인을 갖지 못한 일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한편,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안중근의사와 같은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가 남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안중근 사랑은 지극했다.

안중근의사에 대한 연구

1983년 도쿄 안중근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창설한 가노 변호사는 부회장과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안중근의사 연구를 본격화한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숱한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며

2003.12 가노 타쿠미 변호사 사무실 방문

가노 겐 변호사로부터 안중근의사 자료 수증

일본 내 안중근 재평가를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일본인 대부분은 안중근의사를 테러리스트 또는 살인자로 폄하하지만 그는 일본의 부당한 식민지배에 항거한 의인으로 봤다. 더욱이 변호사의 관점으로 볼 때 안중근의 행동은 명백한 무죄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과 무죄론을 설파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일제의 침략 앞에 2천만 한국민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했다. 두 번째로 죽은 자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초기부터 한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획책한 자였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안중근이 이토를 죽이지 않고는 한국 국민을 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 안중근은 재판에서 개인 자격으로 이토를 죽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가노 변호사는 법률적 견지에서 안중근의사의 재심재판을 고려했으나 그러한 생각은 한국 내에서 많은 파문을 몰고 왔다. 당시 안중근의사숭모회 임원 및 유가족들은 한국의 영웅을 왜놈의 손에 다시 넘긴다는 것은 마음이 용서치 않으며, 일본인이 무어라 하든 안중근 의거의 정의로움은 변함이 없으므로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노 변호사도 안중근의사가 무죄를 입증받는다 해도 오히려 돌아가신 분에게 모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더 진척시키지는 않았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안중근의사에 대한 '무죄론' 주장을 이어나갔다.

관련 자료 수집

가노 타쿠미 변호사의 안 의사 선양 활동은 자료 수집으로도 이어져 옥중 유묵, 가족사진 등 다수의 관련 자료를 모으게 된다. 필자가 2003년 도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는 수십 겹의 습자지에 싸인 목 상자 속 안 의사 가족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며 혹한의 뤼순감옥에서 안중근이 가슴에 품고 있던 그리운 얼굴들이라 했다.

안 의사는 의거 결행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출발을 앞두고 동지 정대호에게 부탁해 부인 김아려와 두 아들을 이국땅 하얼빈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들의 도착은 이미 의거가 결행된 후라 삼엄한 경계 속의 하얼빈 시가지에서 한복 차림의 조선 여인과 아이들은 일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일본 영사관으로 붙들려가는 바람에 가족 상봉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아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로부터 안 의사가 부친임을 밝혀낸 일본 경찰은 증거로 쓰기 위해서인지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뤼순감옥 관리(통역사 소노키 스에요시(園木末喜)일 가능성이 큼)가 사형이 언도된 안중근을 안타깝게 여겨 손수 만든 비단앨범에 담아 전해준 것으로 추측했다.

당초 가노는 사진의 주인공이 부인과 장녀, 차남이라 했으나 장녀 현생은 1909년 당시 조모와 국내에 있었음이 밝혀져 어릴 적 사망한 장남 분도와 차남 준생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한때 외손녀 황은주 여사는 자신의 모친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옥중의 안중근의사가 수 없이 품속에서 꺼내 본 흔적일까? 비단앨범은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다.

사진의 일본 유입은, 사형을 앞둔 안 의사가 재판 당시 통역을 맡았던 소노키 스에요시에게 직접 건넸거나 안 의사 사형 후 검시 과정에서 소노키가 발견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소노키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에 의해 유출된 것을 가노가 구입했다는 것이다.

가노는 또한 안 의사 진본 유묵「천당지복 영원지락(天堂之福 永遠之樂)」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소노키가 안 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측되며 입수 경위는 가족사진과 같다.

이들 자료는 가노 변호사가 운영하는 도쿄 야요이 미술관에 보관됐지만 다른 전시 작품과의 이질성 때문인지 전시된 적은 없다고 한다. 관내 전시물을 둘러보았을 때도 주로 에도시대 풍속화를 비롯해 근대 일본 배우들의 인물화와 영화, 잡지 등이 전시됐고 다카바타케 가쇼(高畠華宵)의 삽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후 도쿄에 갈 때면 가노 변호사를 예방하는 게 필수처럼 됐다.

가노 겐 변호사와 장남 가노 타쿠

가노 가문으로부터 수증된 안중근의사 가족사진

대를 이은 안중근의사 사랑

30여 년에 걸친 가노 타쿠미 변호사의 안중근 연구 선양활동은 2007년 3월 안 의사 순국 98주기 추모식 참석을 끝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2009년 초 도쿄에서 그의 장남 가노 겐 변호사를 처음 만났지만 병중인 부친의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해 3월, 가노 겐이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유묵특별전」출전 건의 긍정적 답변을 갖고 처음으로 서울에 왔다. 부친에 이어 안 의사 순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준비가 한창이던 10월, 가노 타쿠미 변호사는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와 함께 1983년에 설립돼 일본 내에서 연구 선양활동을 활발하게 행해오던 도쿄 안중근연구원도 관계자들의 노쇠와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활력을 잃고 만다.

가노 가문과의 인연은 같은 법조인인 장남 가노 겐 변호사로 이어져, 매년 추모식 참여 등 부친의 유지를 이어갔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친선교류 행사에서 스피치 등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했고, 메일과 라인, 전화로 근황을 주고받으며 안 의사 유묵의 상속 건과 관련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해가 더할수록 그의 행동은 진지해졌고 장남 가노 타쿠 鹿野拓를 동행하기도 했다. 강연이나 학술발표 요구에 연구는 따분하니 다른 쪽으로 돕겠다고 했다. 대를 이은 가노 가문의 안 의사 사랑이 다시 빛날 것 같았다.

안중근의사 자료를 고국으로

가노 타쿠미 변호사로부터 안 의사 가족사진이 공개된 지 22년만인 2020년 1월 사진과 절필 유묵 등 진본을 포함한 48점의 귀중한 자료가 그의 아들 겐에 의해 본회(기념관)로 기증됐다. 110년 만의 귀향이다.

2018년 여름, 가노 겐 변호사와 통화 도중 그가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잘 치료될 것이라 위로를 건넸다. 수화기 너머 그의 음성도 변함없었다. 17년 전 도쿄 가노 타쿠미 변호사를 찾으면서 소원했던 안 의사 자료 환수가 장남인 가노 겐으로 이어지며 "언젠가는 주겠다"고 까지 발전한 상황이었는데 왠지 불안해졌다.

국내·외에서 관계자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으며, 서둘러 가노 겐 변호사를 찾았을 때 그는 마음을 굳힌 듯 형제들을 거듭 설득해 보겠다 한다.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일방적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2019년 9월 한밤중에 증인을 대동한 재방문이 힘들게 이루어져 자료의 인수 날짜를 확정지었다. 48점이란 기증 목록을 받았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020년 3월부터 지구촌을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간 왕래가 끊어진 가운데 금년 4월 가노 겐 변호사가 별세했다. 어쩌면 그는 치바 도시치로부터 영향을 받은 가노 가문과 안중근의사의 인연을 스스로 매듭짓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에 대한 큰 죄과를 저지른 일본이 이를 응징한 안중근의사를 정당하게 평가한다면 일본은 보다 크고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던 가노 타쿠미 변호사. 그리고 형제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부친에 이어 안 의사를 섬기며 유품의 귀향을 실천해 준 장남 가노 겐 변호사 부자의 안 의사 사랑은 막을 내렸지만, 가노 가문의 진정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하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자신의 안위보다 조국의 앞날을
먼저 걱정했던 안중근의사.
그의 뜻에 공감해 함께 몸 바쳐 싸웠던
안중근의사의 동지, 가족들을 조명합니다.

20 안중근이 지나온 길
22 안중근의 가족들
28 안중근의 사람들
32 그곳에 가면

'하얼빈에서의 11일'을 따라

안중근의 길을 걷다

안중근의사가 하얼빈의거를 결행할 당시의 상황과 안 의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감히 안중근의사의 결연한 의지와 만감을 모두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좇다 보면 안 의사의 아귀센 의지를 조금이나마 더듬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얼빈의거 당시의 그 현장을 112년이 지난 오늘, 안중근의사와 같은 길을 걸어봤다.

1일차 하얼빈의거 D-4/ 하얼빈역

드디어 도착! 여기가 바로 안중근의사가 민족의 주적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하얼빈역이라는 거지? 벌써부터 마음이 비장해지네.

맞아, 1909년 10월 22일 오후 8시에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세 사람이 도착한 곳이 여기 하얼빈역이야.

2일차 하얼빈의거 D-4~3/ 김성백 집터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당시 하얼빈 한인회장인 김성백이 살던 집터야. 안중근의사 일행은 하얼빈에 있는 동안 이 집에 머물렀거든.

3일차 하얼빈의거 D-3/ 하얼빈공원(현 자오린공원)

다음날 안중근의사는 우덕순, 유동하와 함께 하얼빈 시내로 나갔어. 길도 익히고 일본인처럼 보이기 위해 복장을 갖추고 사진관으로 가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지.

맞아. 그리고 하얼빈공원을 거닐며 거사 계획을 짰어. 공원에 안중근의사 유묵 석비가 세워져 있어.

이어 조도선을 찾아가 거사 계획을 논의했지.

4일차 하얼빈의거 D-2~1/ 채가구역

24일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은 채가구역에 도착했고, 다음날 안중근의사는 홀로 하얼빈으로 이동했지. 남은 우덕순과 조도선은 거사를 준비했지만 삼엄한 경비 때문에 역구내에 갇히게 됐어.

5일차 하얼빈의거 D-DAY/ 하얼빈역 플랫폼(의거 현장)

안중근의사는 26일 오전 7시경 결연한 마음으로 이곳 하얼빈역에 왔어.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침내 이토에 총을 겨눴고 이토는 총을 맞았던 거야

아, 여기 안 의사가 이토를 향해 총을 쏜 자리에는 세모표, 이토가 총을 맞고 쓰러진 자리는 마름모꼴로 표시돼 있네.

5일차 하얼빈의거 D-DAY/ 하얼빈 일본총영사관(현 화원소학교)

안중근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후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에 끌려갔어. 그리고 이 건물 지하에 있는 감방에 감금됐지만 당당한 모습이었다고 해.

안중근의사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만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거겠지?

6~10일차 하얼빈의거 D+1~5/ 하얼빈 일본총영사관 지하 감옥

안중근의사가 이렇게 비루한 곳에 갇혀 있었단 말이야?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안중근의사는 이곳에서 일본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의 심문을 받으며 15가지 죄목을 들어 이토가 처단당해야 하는 이유를 정정당당히 밝혔어.

11일차 하얼빈의거 D+6/ 하얼빈~뤼순(남만주 철도길)

안중근의사가 뤼순감옥으로 가던 길이야. 안 의사가 이 철로를 달리는 기차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되니?

그래. 그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져. 안중근의사가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이기에 더 감사하며 살아야겠어.

독립운동 명문가 안중근 가문의 빛과 그늘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를 15명이나 배출한 안중근의사 가문은 그 역사가 곧 한국독립운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백범 김구와 안중근의사 가문과의 인연, 또 임시정부를 비롯해 대한적십자회나 한인애국단 등 각 독립운동 기관과 인연을 맺고 활동한 안 의사의 형제, 조카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복 후 안중근의사의 집안은 '영광'보다는 '고통'이 더 많았다. 그 빛과 그늘을 살펴봤다.

안중근 집안이 배출한 독립운동가와 안명근

안중근 집안이 배출한 독립운동가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안 의사의 형제들인 '근(根)'자 항렬부터 보면, 친동생들인 정근(定根)·공근(恭根)과 사촌형제인 명근(明根)· 경근(敬根)을 꼽을 수 있다. 이어 조카들인 '생(生)'자 항렬로 내려가면, 춘생(椿生)·원생(原生)·진생(珍生)·미생(美生)·우생(偶生)·낙생(樂生)·민생(民生)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안명근의 매제 최익형·안춘생의 부인 조순옥 등도 이 대열에 동참한 인물이다.

이들 가운데 명근은 일제가 1910년 12월 황해도 선천역에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를 암살하려 했다고 조작한, 이른바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몇 차례 감형됐으나 총 15년 동안 복역했다. 출옥 후 중국으로 망명,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1927년 중국 길림성에서 병사했다.

평화주의를 계승한 안정근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 후 정근·공근 두 형제는 형의 유지를 받들고 유족을 돌보기 위해 연해주로 떠났다. 안 의사의 아내 김아려 여사와 두 아들을 포함해 일족은 모두 8명

이었다(큰딸 현생은 명동성당 안 수녀원에 체류). 정근은 가족들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니콜리스크에서 상점을 열었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하던 동생 공근은 나중에 정근의 가게 일을 돕기도 했다. 일제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정근은 1915년 8월 러시아 국민병으로 종군하고, 공근은 은신하면서 벼농사에 성공해 200석가량의 쌀을 수확하기도 했다. 1917년 러시아의 2월 혁명 결과 1918년 1월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이 결성되자 정근은 여기에 가입했고, 공근은 1918년 6월 니콜리스크에서 결성한 한인 비밀회합에 참여하는 등 두 형제가 모두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4 5

1 2

3

1 안명근 가출옥 당시 사진(시대일보 1924년 04월 11일 1면)
2 안중근의사의 사촌형제인 안경근
3 안중근의사의 두 동생 안정근, 안공근과 빌렘 신부, 안명근(사진 왼쪽부터)
4,5 뤼순감옥에서 안중근의사의 유언을 듣고 있는 빌렘 신부와 두 동생인 안정근, 안공근

정근·공근 형제에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19년 3·1 만세 의거 후 그해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였다. 이에 앞서 1918년 11월경 상해로 건너갔던 정근은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즉시 참여했다. 임시정부에서 도산과 밀접하게 활동한 정근은 임시정부 산하 대한적십자회 부회장을 맡았다. '반제국주의'와 '인도주의'를 표방한 대한적십자회는 '한국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의거를 일으킨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이 운영한 단체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초창기 적십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국에 체류한 회장 이희경을 대리한 부회장 안정근에 의해서였고, 이후 여운형과 이미륵(이의경)이 합류해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후 정근은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창당, 이사로 활동했으며 그해 11월 길림에서 조소앙이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또 1922년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를 설립, 〈독립신문〉을 발행해 한-중 양국간의 친선과 대일항쟁을 도모하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선전 및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또 이 해 5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국회) 의원에 선출됐으며, 1923년 10월 교민단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임시정부와 관련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정근은 말년에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광복 이

6 7 8

6 1930년대 임시정부 시절의 안공근(이동녕, 김구, 이시영, 조완구, 엄항섭 등과 함께)
7 광복 후 상하이로 돌아온 안정근
8 안봉생

후에도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1949년 3월 상해에서 타계했다.

임시정부의 숨은 일꾼 안공근

안중근의사의 형제들 가운데 백범 김구와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친동생 정근과 공근이었으며, 이중에서 한 명을 꼽는다면 공근이었다. 니콜리스크에 남아 있다가 1920년 5월 상해로 건너온 공근은 당시 임시정부 국무총리 안창호의 발탁으로 임정 최초의 러시아 대사 겸 외무차장에 임명됐다. 안창호는 그가 러시아어에 능통하고 러시아 사정에 밝은 것을 높이 사 발탁을 한 셈이다. 실제로 공근은 1922년에는 모스크바로 건너가 레닌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이듬해 다시 상해로 돌아온 그는 모친 조마리아와 큰형 안 의사 가족의 생계까지 떠맡아 구미 공사관에서 통역과 정탐원 노릇을 하며 생활을 꾸렸다. 1926년에는 상해 한인교민단 단장이 돼 한인들의 인권보호와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공근이 백범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1930년 1월 김구·안창호 등 민족주의자 228명이 한국독립당을 창당할 때 깊이 관여했으며, 이듬해 11월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들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 활동의 중요한 변곡점이 된 한인애국단의 본부는 공근의 집에 설치됐으며, 한인애국단의 중요한 일들이 공근의 집에서 결정됐다. 한 예로 1931년 12월 13일 이봉창의사의 선서식이 공근의 집에서 거행됐고, 1932년 윤봉길의사가 출정에 앞서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은 공근의 차남 낙생의 집에서 촬영한 것이다. 당시 공근의 집은 프랑스조계(租界) 내에 있었는데, 이곳은 단원들의 비밀아지트 겸 연락처로 활용됐다. 당시 공근은 김구의 최측근으로, 한인애국단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김구-안공근의 갈등과 안공근의 실종

1937년 7월경 공근이 독립운동 무대에서 돌연 퇴장했는데, 그 원인은 김구의 신임을 잃게 되면서부터였다고 알려져 있다. 공근이 김구의 신뢰를 상실한 배경을 두고는 견해가 엇

갈린다. 우선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자금 창구 역할을 해온 공근이 자금 운용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과 청·일전쟁 발발 후 큰형인 안 의사의 가족들을 상해에서 탈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1937년 10월 일본군이 상해를 공격해오자 백범 김구는 당시 상해에 남아 있던 안 의사 가족과 공근의 가족을 구출해 오도록 공근을 상해에 파견했으나, 공근은 자신의 가족만을 데리고 나왔다. 이에 백범이 크게 노했다. 〈백범일지〉의 관련 대목을 보면,

"나는 안공근을 상해로 파견해 자기 가솔과, 안중근의사의 부인인 큰형수를 기어이 모셔오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런데 공근은 자기의 가속(家屬)들만 거느리고 왔을 뿐, 큰형수를 데려오지 않았다. 나는 크게 꾸짖었다.

'양반의 집에 화재가 나면 사당에 가서 신주(神主)부터 안고 나오거늘, 혁명가가 피난하면서 국가를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의사의 부인을 왜구의 점령구에 버리고 오는 것은 안군 가문의 도덕에는 물론이고 혁명가의 도덕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군의 가족도 단체생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본의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근은 자기 식구만 중경으로 이주케 하고 단체 편입을 원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뜻에 맡겼다"

한편 김구와 '갈등'을 빚어오던 공근이 1939년 5월 30일 돌연 '실종'됐다. 안 의사 순국 이후 안씨 가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던 공근의 실종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說)이 있다. 하나는 독립운동 단체 내부의 분파투쟁에서 희생됐다는 주장, 또 하나는 일제 밀정에 의해 암살됐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독립운동가 정화암은 "안공근이 독립운동 자금 명목으로 중국 정부에서 거금을 받아 멋대로 낭비해 백범이 공근을 질책한 후 두 사람이 소원해졌다. 그 후 공근이 장개석 정부의 정보기관과 손잡고 백범을 제거하려 하자 백범이 이를 알고 공근을 중국 정부와의 교섭업무에서 배제했는데, 그 뒤 공근의 소식이 두절됐다"고 밝힌 바 있다.

9 10 11

12

9 안원생
10 안낙생
11 조순옥
12 안중근의사 가문 유공자 가계도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한 안중근의 조카들

안 의사의 형제 항렬 가운데 사촌동생 경근(敬根)은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과 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환국 후 김구를 곁에서 보좌하던 그는 1948년 김구의 밀서를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 남북연석회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민주구국동지회'를 결성, 반(反)이승만 대열에 서서 정치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경근은 5·16 직후 7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으며 출옥 후 타계했다.

이 집안에서 경근과 비슷한 역경의 삶을 산 사람은 또 있다. 안 의사의 5촌 조카인 민생(民生) 역시 광복 후 평화통일운동과 노조운동을 하다가 5·16 이후 반국가사범으로 몰려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공근의 장남 우생(偶生)은 상해에서 한국청년전위단,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광복 후 북한으로 건너가 활동하다가 1992년 사망했다. 그는 평양 통일열사릉에 묻혔다.

광복 후 불우한 삶을 산 안 의사 가문의 후예들

안중근 가문의 후손들은 광복 후 빛을 보기는커녕 탄압을 받거나 해외로 흩어져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안중근의사의 아들인 안준생이 일제가 벌인 1939년 '박문사 화해극'에 동원돼 변절자로 낙인찍힌 것일 것이다. 이후 안 의사의 직계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했고 나머지 후손들도 뿔뿔이 헤어져 빛을 보지 못했다.

광복 후 그나마 이름 석 자를 낸 사람은 춘생(椿生) 정도다. 1912년생인 춘생은 안 의사의 5촌 조카로, 1917년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한 후 일제의 만주침략이 격화되자 난징으로 건너가 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군사학을 공부했다. 1936년 졸업과 함께 중국군 제2사단에 배속돼 대일전에 참전했으며, 이후 중국군에 배속돼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1940년부터는 광복군에 편입돼 사병훈련과 정보수집 등을 담당했으며, 1942년 4월 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장에 임명됐다. 광복 후 육사 제8기로 졸업한 후 육군사관학교 교장·육군 제8사단 사단장·국방부 차관보 등을 역임한 뒤 1961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이어 국회의원·광복회장·초대 독립기념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국민훈장 동백장·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받았다.

조마리아
(1862 ~ 1927, 애족장 2008)
안중근의사의 어머니
상하이 재류동포 정부경제후원회 위원 활동

안정근
(1885 ~ 1949, 독립장 1987)
안중근의사의 동생
중국 길림 '무오독립선언문' 공동참여
대한적십자회 부회장

안중근
(1879. 9. 2.~ 1910. 3. 26.)
대한민국장 수훈(1962)
연해주에서 의군중장으로 국내 진공,
단지 동맹 결성, 의열 투쟁 침략원흉
이토 히로부미 처단

안공근
(1889 ~ 1940, 독립장 1995)
안중근의사의 동생
임시정부 공식 파견 외교관
한인애국단 지휘

안태순
(1872 ~ 미상, 애족장 2009)
안중근의사의 숙부
러시아의 독립운동 단체
노인단 대표 중 한 명

안명근
(1879 ~ 1927, 독립장 1962)
안중근의사의 사촌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조작한, 이른바 '105인 사건'의
주모자

안경근
(1896 ~ 1978, 독립장 1977)
안중근의사의 사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가담
일제 관헌과 밀정 숙청에 진력

안홍근
(미상 ~ 미상, 애국장 2010)
안중근의사의 사촌
노령 이만, 연해주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

안원생
(1905 ~ 미상, 애족장 1990)
안중근의사의 조카
한인청년회의 총간사
한국광복군 인지파견책임자를
역임

안낙생
(1913 ~ 1950, 애족장 1995)
안중근의사의 조카
윤봉길의사의 사진 촬영
한인애국단의 거사 출발 전
기념촬영

안춘생
(1912 ~ 2011, 독립장 1963)
안중근의사의 5촌
광복군 간부 훈련 정보수집·적정
정탐 임무 수행,
지하공작 전개

안봉생
(1908 ~ 1980, 애국장 1990)
안중근의사의 5촌
중앙군관학교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만나 보좌업무 수행

최익형
(1890 ~ 1950, 독립장 1977)
안중근의사의 매제
신민회에 가입, 황해도에서 활동,
일제가 만들어낸 안악 사건으로 인해
5년간 복역

조순옥
(1923 ~ 1973, 애국장 1990)
안중근의사 5촌(안춘생)의 처
광복군 입대하여 한국 청년 초모 공작,
정보 수집에 활약

오항선
(1910 ~ 2006, 애국장 1990)
안중근의사 여동생(안성녀)의 며느리
김좌진 장군 휘하에서 동지들과 복수전을
계획,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습격

'훈춘 호랑이' 황병길

황병길은 안중근의사와 같이 일생에 걸쳐 항일 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로 전해진다. 그중에서도 무장투쟁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은 연해주에서 국내진공작전과 단지동맹을 하며 만난 안 의사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안중근의사와 함께 시작해, 그가 순국한 후에도 독립운동을 이어온 '황병길'의 이야기에 주목해본다.

글 **이주화**(안중근의사기념관 학예과장)

안중근의사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전개

황병길은 1885년경 함경북도 경원군 경원면 송천동(현 경원군 중영리)에서 소작인 황오섭의 아들로 태어났다. 황병길의 집안은 매우 가난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그는 가난을 피하기 위해 연해주로 이주했다. 1918년의 일본 정보문서에 따르면, 황병길은 1907년 3월 중국령으로 이주했으며 1902년부터 약 8년간 북청진위대 보병 하사로 근무했다고 한다.

한편 황병길이 1905년 연해주로 이주해 러·일전쟁 당시 통역으로 러시아군에 가담하고 이범윤의 산포대에 들어가 활동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범윤의 산포대에 가입한 황병길은 안중근의사가 최재형, 이위종 등의 후원에 힘입어 조직한 '연추의군'에 가담해 1908년 7월 국내진공작전 때 신아산 전투, 서수라 전투에 참여했고 1909년 초 안중근의사 등이 결성한 단지동맹에 가입했다.

황병길이 기록에 전면으로 등장하는 때는 1911년 12월경부터다. 그는 연해주에서 훈춘으로 이주한 뒤 훈춘 순경국에 고용됐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개시했다. 황별길은 1912년 6월 윤해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에 관해 동료들과 논의하고 다시 훈춘으로 돌아올 때 그를 훈춘 순경국에서 호위했다. 또한 김관수 의병대가 훈춘에서 활동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그는 중국 관헌의 정책을 이용하기도 했다. 훈춘 지사 팽수당(彭樹棠)이 일본의 만주로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주 한인들을 귀화시키려 하자, 황병길은 독립운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 중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이 무렵 기독교에 귀의한 황병길은 종교를 활용해 독립운동을 강화하려 했다. 그

무력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황병길
(왼쪽에서 여섯번째)

연추의군 당시 황병길(오른쪽에서 두번째)

는 먼저 1912년 6월 자택에서 교인 모임을 개최하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교인들과 연계해 항일사상을 고취시켰다. 1913년 12월에는 기독교 교우회를 결성해 회장에 취임했으며, 1914년 1월 20일에는 기독교 교우회보를 창간해 회원들에게 국제 정세 및 독립운동의 상황을 알렸다. 또한 황병길은 간민회의 후속단체인 장업회에서 훈춘현 책임자로 지명돼 독립운동가들과 긴밀하게 교유했으며, 기독교 교우회 부속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그가 설립한 교우회 부속학교는 주로 군사교육을 실시했고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전념했다.

황병길은 군자금 모금에도 힘을 기울였다. 초반에는 기독교 교우회를 활용했으나 계획만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자, 이동휘, 이동춘, 김영학 등과 함께 애국저금단(愛國儲金團)을 조직해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군자금 모집에 착수했다. 애국저금단의 본부는 동녕현에 세웠으며 무기 공급이 주된 활동이었다.

그는 한인들에 대한 선전활동에도 진력했다. 1914년 10월, 이동휘와 함께 독립전쟁에 대해 "산동에서 일본의 대독선전 이래 한인 독립운동가는 중국의 유력자와 교섭해 일본에 공동 대처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14년 11월 중국인 왕정문(王正文)이 훈춘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중국관헌들의 배일 분위기가 고조되자, 이에 고무된 황병길은 이동휘, 오병묵 등과 함께 연해주의 한인들을 근거로 훈춘 영사관, 일본 헌병대를 습격하기로 계획했다.

체포, 그리고 경성시찰단

1917년 10월, 훈춘일본영사분관(이하 훈춘영사분관)은 황병길을 체포했다. 그가 어떻게 체포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시 일제는 훈춘 지역 한인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1916년 12월 훈춘 조선인공회를 설립했다. 훈춘영사분관은 한인들이 훈춘 조선인공회에 더 많이 가입하게 하

기 위해 체포된 황병길을 '석방'시켰고, 이로 인해 훈춘 조선인공회의 회원이 급증했다. 이후 훈춘영사분관은 황병길을 친일선전에 활용하고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원군으로 데리고 가 헌병대, 수비대, 군청을 방문하게 했다. 더 나아가 황병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시찰이란 명목으로 관광을 권유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려 했다.

1918년 4월 11일, 훈춘 조선인공회장 김명호와 부회장 조익형은 독립운동가 한형권, 문병호, 양하구 등을 소집하고 5월에 출발할 시찰단의 최종 규모를 정했다. 황병길은 가슴의 통증과 다리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관광단에서 빠지려 했지만 끝내 시찰단장으로 선임됐다. 이리하여 결성된 경성시찰단은 1918년 4월 28일 훈춘을 떠나 청진 등지를 시찰하고 5월 3일 의정부에 도착했다. 일제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인솔할 세 사람으로 황병길, 이춘, 조익형을 선정했다. 황병길은 겉으로는 일제에게 감화된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내심 일제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 1919년 2월 24일 일본 정보자료에 따르면, 그는 동지 김정락에게 시찰단 파견에 대해 자신이 이미 죽음을 각오했으며 일제에 대한 비타협을 맹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1년 후 표출됐다.

> 황병길은 의용군 1,300여 명을 이끌고 국내 진군을 감행했다. 일제는 경찰과 밀정을 총동원해 그를 잡으려 들었다.

3·1운동과 무장투쟁

1919년 3월 11일, 황병길은 3·1 운동과 관련해 이명순과 함께 북일학교장 양하구와 교사들에게 독립운동에 관한 서면을 보냈다. 그리고 3월 13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가들과 협의했고 15일 훈춘 지역민과 연합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다. 3월 20일 오후 1시경에 700여 명의 한인들과 함께 훈춘영사분관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했다. 황병길이 청년들에게 연설을 하고 이어 노종환이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면서 시위대의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황병길은 독립선언을 한 후 영사분관의 한인 순사 및 밀정을 처단하고 훈춘 한인마을에 태극기를 제조하게끔 했다. 하지만 훈춘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중국 측과의 협의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만세 삼창을 하고 상황을 종료했다.

1919년 3월 말부터 황병길은 독립운동의 인적 자원과 무기 공급에 전력을 다했다. 일본 정보문서에 따르면, 그가 3월 말 이래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 러시아로부터 총기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1,200명의 동지를 규합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그는 김동한, 정규환, 김약연, 김영학, 윤능호, 문창범과 함께 한인결사대를 조직했고, 1919년 4월 17일 노종환에게 대황구에서 4월 26일에 있을 독립운동 관련 집회의 개최 준비를 명령했다.

황병길은 군자금 모집의 조직화를 꾀하기 위해 나정화와 함께 대한국민회 훈춘지부를 조직했다. 이에 일제는 훈춘 공서에 황병길의 체포를 거듭 촉구했고, 간도 총영사도 연길 도윤에게 이를 직접 요청했다. 그러나 황병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국민회원 가운데 150명을 선발해 결사대를 조직하고 군자금 모집에 동원했다. 그는 결사대를 나눠 파견했는데, 이는 대규모 부대의 움직임이 일제에 의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황병길은 니콜리스크에서 문창범, 홍범도와 협의해 명동학교 학생과 북일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 수가 500여 명에 달했다. 그는 이를 2,000명으로 늘리기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고 동료를 포섭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9월 19일에 개최한 훈춘현 사도구에서 훈춘대한인국민회 총회를 통해 홍범도와 이용, 채영 등이 결사대원 200여 명을 이끌고 국내로 진격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훈춘에서 스러지다

1920년 1월, 황병길은 최상학, 최상규, 구현문, 조민국, 조원

러시아 크라스키노지역 외곽에 세워져 있는 안중근의사 단지동맹비

창 등과 함께 시국을 논의한 끝에 3월에 개최될 국제연맹회의에 조선의 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 단체가 연합해 의용군을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독립 쟁취를 이루기로 결정했다. 이윽고 그가 모집한 의용군이 1,300여 달하자, 황병길은 이 병력을 활용해 국내 진군을 감행했다. 그는 2월 10일 훈춘의 자택을 출발해 러시아 삼차구로 가서 이동휘 및 문창범과 협의해 상하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납부할 방안을 마련한 뒤 의용군과 합세했다. 이후 부하 최용삼과 함께 3월 18일 온성군 장덕동 미산헌병감시소를 습격해 일본군과 40분간 교전하고 일본헌병보에 중상을 입혔으며 통신을 단절시켰다.

일제 영사관은 황병길의 무장투쟁으로 상황이 위급해지자 일본 경찰에 "모든 반일투쟁이 황병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그는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이니 체포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일제 경찰들은 밀정을 총동원해 그를 잡으려 들었고, 황병길은 이들을 피해 여러 곳을 전전했다. 그러나 이 무렵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급기야 급성 폐렴까지 걸리고 말았다. 그는 훈춘의 어느 숲속에 마련된 은신처에서 부인 김숙경(金淑卿)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굳세게 싸우시오."

1920년 6월 1일, 황병길은 눈을 감았다. 향년 35세. 그의 유해는 훈춘 연통랍자에 안장됐다가 1992년 국내에 봉환돼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공훈을 기려 1963년 황병길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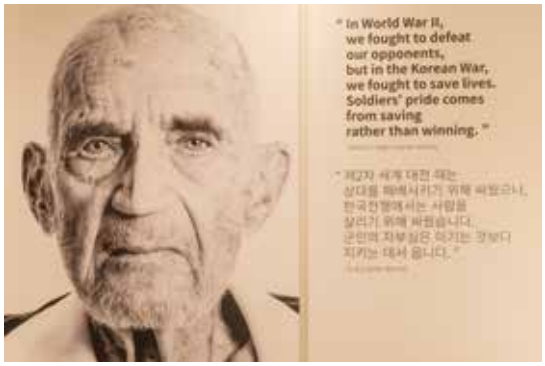
유엔평화기념관 & 재한유엔기념공원

세계 평화와 연대의 상징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안중근의사의 마지막 옥중 유묵이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침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이다. 올해는 재한유엔기념공원(이하 유엔기념공원)이 조성된 지 70주년 되는 해다.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국의 청춘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31살 청춘의 나이에 독립운동과 동양평화를 위해 이국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안 의사. 유엔 참전용사들과 안 의사는 어쩐지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다. 그 연대와 공존의 정신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이곳에는 유엔기념공원과 함께 유엔군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유엔평화기념관이 있다.

글·사진 **이시목**(여행작가)

11개의 물 계단과 11개의 분수, 11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무명용사의 길'과 유엔군 위령탑



〈프로젝트 솔저〉 전시에서는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증언도 들을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이따금 무언가를 어루만지기만 할 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움직임이 적었다. 그가 머물던 자리엔 짧지만 묵직한 문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는 겁쟁이야. 진짜 영웅은 그때 죽은 내 전우지."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해다. 71년이란 시간은 누군가에겐 까마득한 과거겠지만, 그 시절을 산 누군가에겐 지금껏 생생할 오늘일 테다. 가늠컨대 그에게 71년은 후자일 것이 분명하고, 전우를 오래 기억하는 것으로 추모하며 감사했을 터이다.

요즘 유엔평화기념관엔 그와 같은 노신사의 방문이 잦다. 참전용사 사진 특별전 〈프로젝트 솔저 Project Soldier〉의 영향이다. 〈프로젝트 솔저〉는 라미 현 사진작가가 생존해 계신 전 세계 참전용사들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유엔평화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중이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잊힌 전쟁의 참전용사가 아니라 참전용사의 자부심을 기록해 역사로 만들고 싶었다"고 전한다. 작가의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일까. 여든을 훌쩍 넘긴 노병들의 얼굴에서도 눈이 반짝 빛난다.

그들의 눈빛만큼이나 증언도 생생하다. 미 육군 맥스바우져 오스본 씨는 "그 휘슬 소리가 들리고 나면 언제나 포격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 휘슬 소리가 들리면 뛴다."는 증언으로 당시의 참혹함을 전했다. 미 육군 윌리엄 웨버 대령의 명언 같은 증언도 인상 깊다.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상대를 패배시키기 위해 싸웠으나, 한국전쟁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군인의 자부심은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데서 옵니다."라고 말했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기꺼이 싸웠다는 고백이다. '연대를 통해 동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미래를 위해 평화의 씨앗을 심습니다'라는 콘셉트로 개관한 유엔평화기념관

양평화와 세계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안 의사의 염원을 닮은' 이 고백이 새삼 고맙다.

"내가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 땅에 묻어 달라"

〈프로젝트 솔저〉가 부산에서 열린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6·25전쟁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곳이었다. 1·4후퇴 후부터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으며, 6·25전쟁 내내 유엔군과 국군의 보급을 맡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대한민국을 살릴 '한 줌의 씨앗'이었던 셈이다. 그 덕에 부산엔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모습과 전쟁 당시의 흔적, 현재 한국의 모습까지가 고루 담겨 있다.

특히 유엔군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엔기념공원이란 특별한 공간을 품고 있는 것이다. 유엔기념공원은 1951년 유엔군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됐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조성한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로, 현재 이곳에는 22개 참전국 중 한국 포함 11개국 2,300여 명의 용사가 영면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기꺼이 삶을 희생한 이국의 청춘들을 마주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곳에 서면 누구의 가슴이든 먹먹해진다. 언제였나. 터키의 참전용사 스트리히 보즈쿠르트 씨의 사연을 신문기사를 통해 접한 적이 있다. 고국에서 올리브나무 묘목을 가져와 동료의 묘비 앞에 놓으며 "혼자 살아남아서 죄송하다"며 목 놓아 울던 그였다. 언제 어느 때건 부산에 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처럼 살아남아 미안한 마음에도, 이 땅에 흩뿌려져 안타까운 이국의 청춘에게도 국화 한 송이 고맙게 전해볼 일이다.

평화 위해 싸운 유엔군의 연대와 배려 기린다

유엔평화기념관은 유엔기념공원 가까이에 있다.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세계 유일의 기념관으로 지난 2014년 11월

라미 현 사진작가가 촬영한 유엔군 참전용사들. 유엔평화기념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10월까지 볼 수 있다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역이 있는 재한유엔기념공원. 이곳엔 현재 22개 참전국 중 한국 포함 11개국 2,300여 명의 용사가 영면해 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재한유엔기념공원 내 추모관

재한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한 2,300여 명 전몰장병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부조물

전쟁의 참혹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유엔평화기념관 한국전쟁실의 고지전 코너

6·25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실제 사용했던 철모

11일 개관했다.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는 세계 각국이 부산을 향해 1분간 일제히 묵념을 올리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 진행되는 날이다. '턴 투워드 부산'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유엔평화기념관이 11월 11일에 개관한 이유다.

기념관은 총 5층 규모로 구성돼 있다. 1층엔 한국전쟁실과 기획전시실 등이 있고 2층엔 유엔참전기념실과 유엔국제평화실, 유엔피엠평화센터 등이, 5층엔 전망대가 있다.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6·25전쟁을 모티프로 한 한국전쟁실이다. 이곳 초입엔 유엔군이 부산항에 첫발을 내디뎠을 1950년대 부산항의 모습이 디오라마(모형전시물)로 재현돼 있다. 갈매기 끼룩대는 바다 위를 나는 수십 대의 전투기가 긴박했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이곳에서부터 공간은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야기를 펼친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서울 탈환 과정부터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인한 유엔군과 국군의 후퇴 과정, 그리고 치열하고 참혹하게 이어졌던 수많은 고지전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며 볼 수밖에 없는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

1층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여준다면, 2층은 세계 평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유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도 보여준다. 이중 마음에 오래 남는 곳은 유엔참전기념실이다. 유엔참전기념실엔 6·25전쟁에 참전했던 22개 참전국의 활동상과 참전용사의 인터뷰 영상, 전쟁 당시 그들의 사진과 편지 등이 전시돼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몸 바친 젊은 날 그들의 모습과 증언에서, 누군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 쏙 빼는 이야기를 듣는다.

참전용사, 그들은 전쟁이 끝난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통해, 전쟁을 체험한 이 땅의 삶들은 따뜻한 위로를 받고,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올해는 이국의 청춘들이 대한민국 땅에 영면한지 70년째 되는 해다. 유엔기념공원엔 그들 전몰장병의 이야기가, 유엔평화기념관엔 참전용사들의 삶이 묵직하게 펼쳐져 있으니, 찾아 둘러볼 일이다. 그리고 기억할 일이다. 그들이 우리를 잊지 않았듯이….

유엔군 참전용사의 국적과 이름, 소속, 생년월일, 전사 시기 등이 적힌 동판

Travel Info

유엔평화기념관

관람시간 : 10:00~17:3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과 당일
입장료 : 무료
문의 : 051-901-1400

재한유엔기념공원

관람시간 : 하계 09:00~18:00
동계 09:00~17:00
휴장일 : 없음
입장료 : 무료
문의 : 051-625-0625

하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안중근의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말과 업적, 사상은
1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계승해 현대에 되살리고자 하는
그의 후예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38 도마를 기리다
40 도마를 따르다
43 기념관 돋보기
46 주요 소식
50 도마의 서

‘안중근의사의 업적과 정신을 더 널리’
온라인으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한 순국 111주기 추모식 현장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3월, 새순이 파릇파릇 돋아난 남산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나라를 위해 형장의 이슬이 돼 사라진 안 의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거행한 안중근의사 순국 111주기 추모식이다. 코로나19로 대외행사가 축소된 가운데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유튜브로 중계한 추모식 현장을 찾았다.

온라인으로 더욱 많은 이들과 함께한 자리

지난 3월 26일 안중근의사의 순국 111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유족과 임원, 회원, 기관장 등 80여 명만이 참석했다. 외부 인사로는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을 비롯해 조경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김한극 황해도중앙도민회장, 안덕주 순흥안씨대종회장, 명노승 윤봉길기념사업회장, 이원식 광복회 서초구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식은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를 통한 생중계로 안 의사를 존경하는 많은 국민들이 추모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추모행사는 국민의례, 안중근의사 약전 봉독, 최후의 유언 낭독, 추모식사, 내빈 추모사,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 및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황식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국가 간의 차별을 없애고 공존공영을 하자는 동양평화론의 근간은 3·1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

장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며 "안중근의사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 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기린 제1회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

올해 추모식에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 제정한 '제1회 안중근동양평화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안중근동양평화상'은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애국 정신과 평화 사상을 기리고 미래 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안 의사 관련한 학술연구 및 선양활동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나 인물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상이다. 제1회 안중근동양평화상 수상자로는 일본 류코쿠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가 선정돼 상패와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됐다. 이 센터는 2013년도에 설립돼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일본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의 및 세미나, 유묵전 등을 개최해 학생들에게 안 의사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육해왔다.

시상식에는 일본 류코쿠대학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 이수임 센터장을 대신해 류코쿠대 졸업생인 카와노 요헤이(河野洋平) 씨가 참석해 수상했다. 이수임 센터장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제1회 안중근동양평화상을 받게 돼 류코쿠대학교와 안중근동양평화연구센터 관계자 일동 모두는 매우 영예롭게 생각하고 감동하고 있다"며 "류코쿠대학의 건학정신인 「진실을 찾아 진실하게 사는 '자립의 마음'」과 「인류의 대화와 공존을 바라는 '평화'의 마음」을 소중히 하면서, 안중근의사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동양평화를 이루기 위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혀 시상의 의미를 더했다.

안중근의사와 서명훈 선생

우리 사회에는 안중근의사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연구 성과를 내세우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초반에는 1910년대 말 안중근의사의 하얼빈의거에 대한 평가와 선양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지만 1960~1970년대에는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과 「안응칠 역사」의 영인본이 발견되며 안 의사의 사상사로 중심이 옮겨 갔다. 그중 안 의사를 한국의 영웅에서 중국을 넘어 세계의 영웅으로 연구하는 중심에 '서명훈 선생'이 있었다.

글 **김월배**(하얼빈 이공대학교 교수)

현장이 답이다

서명훈 선생은 안중근의사 연구에 대해서는 하얼빈의거 100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저에게 '안중근 연구 전문가'란 칭호를 부를 때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지식 구조나 연구 성과로 볼 때 안중근 사상을 배우는 학도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현재 안중근 연구에서 나타나는 지역이나 출신, 민족 등에 국한되는 편협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고 본다. 안중근의사는 우리 조선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영웅임에 손색이 없다. 100년 전 안 의사가 제창한 평화 사상은 오늘날 유엔의 설립 정신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리해 안중근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다.(『흑룡강신문』, 2009년 4월 17일)"

즉, 안중근 연구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개방된 사고, 안 의사를 우리 민족의 영웅을 넘어 세계의 영웅으로 알리기 위한 평가를 서명훈 선생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서명훈 선생은 "어릴 때 어른들에게 안중근의사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자랑스러웠다"면서 "1989년 한국을 방문해 독립기념관이나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 받은 책을 읽은 뒤 안 의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 언론에서 밝혔다. 서명훈 선생의 안중근 연구는 1992년 한중 수교 이전부터 27년간이다(1989년부터 2016년 서거 때까지). 대략 한 세대 동안 연구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현장 연구로, 하얼빈역에서 정확한 안 의사 거사 지점과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곳에 대한 고증이라 할 수 있다.

"안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 사이의 거리에 대해 어떤 자료는 1m, 어떤 자료는 2m, 또 어떤 자료에는 8발짝, 5발짝, 10발짝 제각각이었다"면서 "직접 하얼빈역 플랫폼에 가서 플랫폼 길이를 재보고 각종 자료와 상황을 종합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5m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하얼빈에서 거주하고 실제 현장을 잘 알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하얼빈역에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격폐 사건발생지(安重根擊斃伊藤博文事件發生地 1909.10.26.)'라는 표지가 있다. 안 의사를 존경하는 수많은 참배객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현장 중 하나일 것이다.

연구자요, 실천가요, 이론 정립가

서명훈 선생의 안중근 연구와 공헌으로는 저술과 사회 실천, 이론 정립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저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중근의사 하얼빈에서 열하루』이다. 안중근 하얼빈의거 연구의 선구자로서 하얼빈에서 안 의사가 체류하는 동안을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도입해 소상히 밝힌 역작이다. 당시 병상에 있던 서명훈 선생은 부인 이영희에게 구술해 집필하게 했고, 일부는 『흑룡강신문』에 연재했던 내용을 발췌해 만들었다. 특히 안 의사의 하얼빈 체류 11일간의 구체적인 동선이 시간별·공간별·인물별로 자세하게 서술됐다. 서명훈 선생이 주필한 또 다른 저술로는 안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2009년 10월 흑룡강교육출판사에서 출판된 사료집 『중국인 마음속의 안중근』이 있다. 이는 하얼빈시 정부에서 중국 전역에 있는 하얼빈의거 당시의 신문 등 원 자료를 수집·정리한 것이다. 발간된 다른 저술로는 『중국 안중근 연구 집대성』으로 중국 내 안중근의사 연구자의 논문과 견해를 정리했다. 또 『안중근의사 지식문답』의 한·중·영문판을 저술했다. 안 의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안중근 사전'이자 금자탑이라 할 수 있다.

안중근의사 연구를 일반에 알린 공헌에 대해서는 1989년 5월 14일, 『하얼빈일보』(중문판)의 「태양도」 문예란 제28기에 "안중근의사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이란 문장을 발표해, 80년 전 하얼빈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안중근이란 위대한 인물이 있었음을 중국 독자들에게 알린 것을 들 수 있다. 1990년 6월에는 하얼빈시정치협상회에서 발간하는 내부 간행물 『하얼빈문사자료』(중문판) 제14기에 "안중근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이란 문장을 발표해, 하얼빈의 정계 인사들에게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업적을 소개했다. 또한 1992년 12월, 동명의 문장을 청소년 독서로 개편해 「얼음도시 열혈보」 아동 총서 제4권 『흑토의 수리개』(중문판)에 발표하고 중국의 광범한 청소년들에게 안 의사의 영웅적 업적을 소개했다.

둘째, 사회 실천 분야로는 2006년 7월 하얼빈역에 안 의사 의거 지점과 이토 히로부미의 주살 지점 표시와 함께 조린공원에 안중근 유묵 설치에 대한 자문 등을 꼽을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14년 1월 19일 하얼빈역에 설치된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안 의사의 일생과 사상에 대한 정제된 내용과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다.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현재 중국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활약했던 안중근연구회, 훗날에 설립된 하얼빈조선민족예술관 안중근전시실 등도 서명훈 선생의 업적이다. 2005년 '하얼빈 한국주(週)'가 시작되면서부터 안

중근 기념사업은 시정부의 중요한 관심을 받고 몇 가지 의의가 있는 일을 해놓았다. 우선 하얼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 '안중근의사 기념전시관'을 설치했다. 이 전시관은 '안중근의사 하얼빈에서의 열하루'를 주제로 하얼빈의거의 처음과 끝을 상세하게 표현했고, 안중근의사와 하얼빈의 인연을 생동감 있게 재연했다. 2006년 7월 제2차 하얼빈 한국주 전날 저녁에는 공원 서쪽에 '청초당'을 개설하고 1.26m 높이의 비석을 세웠다. 비석 정면에 안 의사의 손바닥이 찍힌 청초당(青草塘) 세 자를 세로로 새겼다. 뒷면에는 연지(硯池) 두 글자를 새겼다. 이 청초당의 개설은 하얼빈 시민들의 안 의사에 대한 숭모의 심정을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하얼빈시 정부 외사사무판공실에서는 2009년 10월 안중근 하얼빈의거 100주년을 맞아 DVD 〈영원한 기념〉을 제작했다. 이 DVD가 정부 차원에서 제작 발행됐다는 데 특수한 의의가 있다.

셋째, 이론 정립 분야에서 안 의사의 자유민권 사상을 승화시켜 안 의사를 세계의 사상가 반열에 올리려는 노력을 했다. 서명훈 선생은『안중근의사 하얼빈에서 열하루』에서 "안 의사는 교리를 전공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민권(民權)의식이 점차적으로 성숙되어 민권 종교관으로 신도들의 민권을 수호하기에 앞장섰다. 안 의사는 뤼순감옥에서 쓴「안응칠 자서전」에서 '천지 간 만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썼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중하고 사람의 권리는 침범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인권 사상은 오늘에 와서도 보편 진리가 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본 서(書)에서 서명훈 선생은 안중근의사의 자유민권 사상을 여러 번 강조했다. 안 의사의 자유민권 사상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윌슨보다 '민족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사상이 앞섰으며 안 의사의 수십 년을 내다본 혜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상으로 보면, 서명훈 선생은 중국 내 안 의사 선양의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안중근의사 하얼빈의거의 구체적 내용과 현장 고증은 물론이고 저작물, 인쇄 매체, 안중근의사기념관 및 유물 설치 내용에 대한 자문을 통해 안중근의사 정신을 계승하고,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안 의사의 사상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는 첨병 역할에 한 세대를 공헌했다. 한 세대를 넘는 서명훈 선생의 안 의사 연구는 중국인들에게 안 의사를 평화주의자요, 사상가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과 수많은 중국인의 방문인 것이다. 조린공원 청초당 유묵비, 하얼빈역 안중근의사 의거 표지석 등은 중국인의 관심의 중심에 있다. 중국인의 마음속에 안중근을 자리 잡게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서명훈 선생이 일생을 바쳐 이룬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생전 늘 중국 내 안중근의사 연구자가 없음을 개탄했던 서명훈 선생. 지난 2016년 10월 세상을 등진 선생의 영혼은 송화강을 따라 분명 한국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비대면 체험과

다양한 볼거리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더욱 친숙하게!

기념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비대면 관람객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중근의사기념관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그 소통의 장을 연 온라인 현장을 소개한다.

안중근의 후예 키우는 비대면 교육 '초·중등 온라인 교육'

기념관에서는 매년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체험교실, 평화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올해부터는 온라인 툴을 활용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은 매월 주말과 방학에 운영되며 안중근의사의 옥중 유묵을 족자 형태로 만들어보고 하얼빈 의거 이후 활동과 사상을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꾸려졌다. 중학생 프로그램은 학급 단위로 진행하며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고 체험과 교육에 필요한 관련 교구는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안중근의사와 올바른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싶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념관을 방문할 수 없었던 학교와 학생들에게까지 기회가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안중근의사 정신을 숭모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로 만나는 기념관 탐방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놀러와요'

최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게 흥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기념관에서는 온라인 채널 유튜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영상 콘텐츠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 것.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안중근의사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놀러와요'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제작된 이번 영상 콘텐츠는 현채민 키즈 크리에이터와 이예지 뮤지컬 배우가 등장해 기념관과 그 주변을 탐구하며 벌어지는 유쾌한 이야기로 이뤄졌다. 콘텐츠는 구독자들로 하여금 기념관을 간접 체험하고 퀴즈 코너를 통해 재미를 느끼면서도 올바른 역사 상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영상물은 총 3편으로 이뤄졌는데 1편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놀러와요~'는 기념관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체험하는 한편, 기념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제작됐다. 2편 '누가누가 잘할까? 안중근의사 퀴즈 대결!'에서는 기념관의 쾌적한 휴게실에서 이뤄지는 흥미로운 퀴즈 대결을 통해 역사교육을 돕는다. 마지막 3편 '채민, 예지의 안중근의사기념관 주변 VLOG'에서는 기념관이 있는 남산의 명소를 소개해 기념관 방문을 활성화하도록 구성됐다.

이 밖에도 '영상 보고 인증사진 보내기' 이벤트로 채널 접근을 활성화하는 등 구독자들에게 한결 친근한 기념관의 이미지를 전했다.

안방에서 즐기는 낭만적 공연 '또 봄, 버스킹 콘서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생활조차 마음껏 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한 야외 문화공연이 안중근의사기념관 주최로 지난 4월 17일 열렸다. 이 공연은 '2021 안중근 문화살롱'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장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안중근의사기념관 야외 잔디밭에서 개최된 이번 문화공연은 '또, 봄 버스킹 콘서트'라는 콘셉트로 "또, 한 번 봄이 왔으니 봄을 만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현장에 참석한 90여 명의 대면 관람객과 600여 명의 비대면 관람객들은 야외 공연답게 봄의 정취를 맛보며 공연을 만끽할 수 있었다.

볼거리 또한 다양했다. 젊고 실력 있는 인디밴드인 브루나, 제이유나, 취향상점 등이 함께 한 이번 공연은 인기 방송프로그램 〈비긴어게인〉 형태의 음악콘텐츠 콘셉트로 진행돼, 그동안 묻혀 있던 재야 실력자들의 음악 세계를 만끽할 수 있었다.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남산을 찾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이번 야외공연은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문화공연의 오프라인 참석자들은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라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공연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준 높은 관람 태도를 보여줬다.

NEWS

2021년 정기총회 열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2021년 정기총회가 3월 12일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 임원 및 일반 회원 30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임기만료 임원 재선임과 신규임원 선임, 임기만료 자문위원 재위촉과 신규 자문위원 위촉이 있었다. 신규 임원 및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직위	성명	주요 약력
신규 선임	이사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인실	청운 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신규 위촉	자문위원	김상옥	前 ㈜화인코리아 사장
		박귀언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상임이사

유럽본부 오스트리아지회 주최 '안중근의사 순국 111주기 추모회' 거행

3월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유럽본부 산하 오스트리아지회가 주최하는 '안중근의사 순국 111주기 추모회'가 온라인으로 거행됐다.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통해 열린 이번 추모회에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김황식 이사장과 박종범 유럽본부장, 조성규 오스트리아지회장을 비롯해 유럽본부 산하 16개국 지회장들과 민주평통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자문위원들, 한국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서 조태열 전 유엔한국대사의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지정학'에 대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이에 앞서 1월 22일(한국시각)에는 신년 하례식이 유럽본부 및 16개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신년 하례식에서는 각 지회별 '조직 구성안' 및 '2021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 서울여성평화아카데미 수료식서 특강

4월 20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2021 서울여성평화아카데미 수료식'이 개최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영희 서울 여성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은 〈민족의 영웅 안중근의사를 만나다-그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안중근의사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료생 35명과 진행자를 포함해 총 41명이 참석했다.

기념관 이혜균 사무국장 대통령 표창 수상

6월 21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정부포상식을 개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혜균 사무국장은 안중근의사숭모회·기념관의 위상을 높이고 안중근의사의 평화사상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25년간 안중근의사 진본 유품을 기증받는 등 다양한 안중근의사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념관 이주화 학예과장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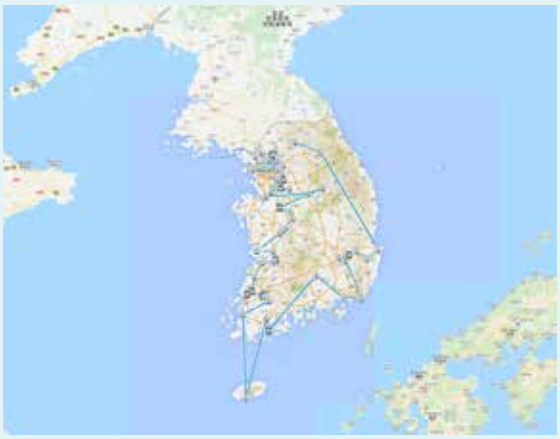
올해 2월 안중근의사기념관 이주화 학예과장이 국가관리기념관 모범직원 국가보훈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주화 학예과장이 그동안 안중근의사기념관의 학예 관리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해, 국가관리기념관 모범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안중근아카데미 총동문회, 안중근의사 후손에 성금 전달

안중근아카데미 총동문회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안중근의사 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안 의사 후손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올해 2월 최기홍 총동문회 회장과 민명주 사무총장은 수원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외손녀 황은주(93세) 여사와 안정근지사의 며느리 박태정 여사(91세)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6일 노환중인 박태정 여사에게 추가로 성금을 전달했다.

총동문회 최종율 사무차장의 대한민국 답사 프로젝트, 〈안중근의사-흔적을 찾아서〉

최종율 사무차장은 대한민국 전역에 산재한 안중근의사의 흔적을 찾고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해외 답사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답사를 진행해 얻은 결과물(사진·영상·지도)을 '구글 맵'을 활용해 〈안중근의사 유적 로드맵〉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 총동문회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안중근의사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념관 방명록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안중근의사기념관 방문

3월 25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찾았다. 이날 황 처장은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의 안내로 안중근의사 좌상에 헌화·참배한 뒤 기념관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관리기념관 현장 시찰 차원에서 이뤄졌다.

안중근의사 외손녀 황은주 여사 노환으로 입원

안중근의사의 외손녀인 황은주 여사(93세)가 노환으로 입원했다. 지난 2월 15일 뇌경색으로 동수원병원 집중치료실을 거쳐 현재 서울 보훈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미국에 거주하다 2015년 국내로 돌아온 황은주 여사는 매년 안중근의사 순국 추모식과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왔다.

안정근지사 손녀 안기수 씨 별세

3월 9일 안중근의사의 동생인 안정근지사의 손녀 안기수 씨가 향년 66세로 별세해,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일산푸른솔공원 납골당에 안치됐다. 안정근지사의 둘째 아들인 안진생(독립운동가, 군인·외교관)은 박태정과 결혼 후 안기수, 안기려 두 딸을 뒀다. 현재 노환중인 박태정 여사(91세)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

안중근 가문과 인연, 정진석 추기경 선종

4월 27일 정진석 추기경이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했다. 향년 90세. 정 추기경의 5촌 고모 정옥녀 씨는 안중근의사의 차남 안준생의 부인이다. 즉, 정 추기경의 집안은 안 의사 집안과 사돈인 셈이다. 정 추기경은 생전 안 의사에 대해 “안 의사는 철저한 가톨릭 신앙인이셨고 그분의 인권 수호활동과 애국 계몽운동은 그리스도적인 사랑과 정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중근의사 장녀 안현생 여사 추도식 열려

4월 2일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에서 안중근의사의 장녀인 안현생 여사의 추도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오 안중근의사기념관 부관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혜균 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현생 여사는 1902년 5월 1일 출생해 1959년 4월 4일 향년 57세로 별세했다.

안중근의사의 궤적을 읽다

안중근의사의 행적과 말, 그의 사상은 그 면면이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다. 그렇기에 안 의사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행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 빌렘 신부의 시각으로, 그의 사후 행적을 찾는 입장에서, 또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육기관을 살펴보며 안중근의사의 사상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안중근의사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
_안중근 순국 110주년 기념 빌렘 신부 서한집

지은이 조제프 빌렘 / 엮은이 한국교회사연구소 / 펴낸곳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교회사연구소(소장 조한건 신부)는 지난 2020년 안중근의사 순국 110주년을 맞아 '안중근의 영적 아버지' 빌렘 신부의 친필 사목 서한을 판독·번역한 『안중근 순국 110주년 기념 빌렘 신부 서한 집-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빌렘 신부가 황해도 지역 사목을 담당한 1896년부터 1914년까지의 서한 가운데, 안중근과 그 가문에 관련된 26통의 편지를 발췌·판독하고 번역·주해해, 사진 자료와 연보, 가계도 등의 부록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뮈텔 문서」 가운데 '빌렘 신부 서한'으로 분류된 자료는 총 281건으로, 이중에서 안중근 관계 자료를 선별한 뒤 「파리 외방전교회 문서」에도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관련된 서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해,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식지 월간 『교회와 역사』 2015년 3월호부터 2017년 4월호까지 연재했다. 이 번역문을 보완하고 연재에 소개되지 않았던 서한을 추가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는 지금에 이르러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대한국인 안중근'의 열심한 신앙, 그리고 안 토마스의 마지막을 함께 하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갔던 프랑스인 선교사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길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참 평화의 길이다』

지은이 김월배 / 펴낸곳 도서출판 걸음

안중근의사 순국 111주년을 맞이해 하얼빈 이공대학교 김월배 교수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참 평화의 길이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은 평화실현의 과정임을 대국민에게 호소하는 강의 형식의 글을 담았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의 현황과 당위성, 방향 등을 한 권에 망라한 사실상 첫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서적이다.

김월배 교수는 중국에서 16년 동안 거주하며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기록한 내용과 연구를 위해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모아둔 사료를 정리해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1986년 북한 발굴단의 단독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과정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단독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과정과 한중합작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과정이 소개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에서 추정하는 유해 매장지역과 그 이유, 그러나 발굴사업이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한 원인 등을 소개한다.

김 교수는 더불어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이 참다운 평화 실현의 과정임을 밝히며 안 의사 유해발굴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짚어준다.

안중근정신을 배우는 독립군 사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지은이 박환 / 펴낸곳 선인

이 책은 신흥무관학교 설립 110주년을 맞이해 수원대 사학과 박환 교수가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신흥무관학교의 전체상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부에서는 신흥강습소에서 출발해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는 과정들을 살펴본다. 2, 3부에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주도세력인 이회영 6형제, 이상룡, 윤기섭 등의 인물을 탐구한다. 더불어 잊힌 숨은 영웅들인 이석영과 임면수의 궤적을 따라가며 그들의 업적을 파헤쳐본다. 기록과 기억을 되짚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4, 5부에서는 김경천, 지청천, 윤철규 등의 회고록과 한국국민당의 『한민』, 조선 민족혁명당의 『앞길』, 중국 당안관 자료 등도 심도 있게 분석하며 신흥무관학교가 나아갔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끝으로 신흥무관학교의 기관지인 『신흥교우보』에서 박은식의 저작, 『안중근전』을 연재해 신흥무관학교생도들에게 안중근정신을 교육하고자 했음도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중근의사 숭모사업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1.1.~6.30.)

법인 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안영홍 ㈜순흥테크 회장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 관장
김경희 전 용마공영㈜ 회장
김영재 칸서스 자산운용㈜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안용석 대화건설㈜ 회장
장성훈 ㈜PS오성 대표이사
곽동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곽삼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곽준상 ㈜도화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권태균 옛골토성 대표
김대현 ㈜페이펄유통 대표이사
박병환 전 주 러시아 경제공사
박종근 ㈜늘푸른수성 대표이사
안근배 순흥안씨 대종회 종사심의위원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신)
안완기 순흥안씨 참판공파 성령공 종중회장
안호택 ㈜디셈 대표
윤종구 천우항측㈜ 기술고문
윤현주 윤현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용환 하이테크섬유㈜ 대표이사
이인실 청운특허법인 대표(신)
정　훈 정훈치과의원 원장
최대규 ㈜뉴파워프라즈마 회장
전진근 서일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송진수 KH에너지㈜ 회장
안봉락 중국 신생활그룹 회장
안재성 리치주택건설㈜ 회장
蔣賢云 제주분마이호랜드 회장

평생회원

강태희
권영호
권오성
김대현
김미겸(신)
김범상
김병윤
김승기
김애실
김월배
김윤자
김재영
김종남
김주태
김철환
김홍렬
나봉춘
나영주
노수문
류종묵
문원상
박덕헌
박병환
박병휴
박상규
박용옥
박인호
박종범
박　주
박한지
박현수
박현순
박효가
반경오
방효갑
배금원
백의웅
백주용
서은철
서홍우,한춘희
선주영
손봉석
손인춘
송지호
신길현
신영건
신현재
안갑원(신)
안광웅
안군준
안기선
안기영
안덕주
안세준
안용희(신)
안재관
안종일
안종채
안지현
안철범
안희돈
양동완
양정호
양창선
여수진
유명옥
유문숙
유재용(신)
윤종구
윤형한
이강녕
이강연
이경림
이경표
이기선
이　담
이동춘
이미금
이배용
이봉석
이상근
이상정
이상현
이석형
이수광
이수진
이용훈
이우진
이원영
이은석
이정홍
이종경
이태진
이혜균
임금동
임채민
장재덕
전순영
전종갑
전진근
정재호
정준영
정지욱
정하철
조종현
최기홍(신)
최석진
최을호
최인훈
최재승
최종율
최진일
최창섭
한성일
한옥동
황덕호
황백현
황은주
황치봉
다카하시 고준 (高橋公純)

특별회원

〈30만 원 이상〉 오경석 이은석 임채민

일반회원

〈10만 원 이상〉

강성부	김수겸	서안메밀집	이정구	이태형
고재신	노병식	안호준	이지은	홍양호
김명구	서예준	윤화섭	이충근	

〈10만 원 미만〉

강성길	김성철	박경화	안재욱(신)	주은아
강인철	김연준	박기선	안찬근	최종숙
고혜숙	김완희	박상순	안현정	최찬비
금재이	김인상	백의웅	양영국	최태선(신)
기민정	김종욱(신)	서 숙	이상걸	태원우
김기영	김주희	심오택	이원술	홍왕기
김미애	김헌곤(신)	안광훈	이은수	황병준
김병국	김현동	안문영	이장노	
김병렬	도재숙	안병식	이치복	
김석진	류재평(신)	안세헌	장세진	

특별 후원금

213LAB 한국공인회계사회 ㈜뉴파워프라즈마 ㈜진흥안전관리 ㈜호텔롯데

기념관 후원

〈10만 원 이상〉 김도연 김영탁 안경민 유수진 이연조

〈10만 원 미만〉

김윤경	배소영	이수진	조성태	최정은
박효진	배소희	이장노	최은경	

안중근사랑(숭모) 회원 가입신청서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Tel) H.P)	e-mail	@
자택주소	( )		
직장주소	( )		
직장명		직위	
가입동기/ 추천인			

※ 회비납부방법은 **CMS 자동이체** 또는 본인이 직접 입금하는 **계좌이체** 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를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 등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함을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CMS 자동이체	① 일반회원 ☐ 월 5,000원 ☐ 월 10,000원 ② 특별회원 ☐ 월 30,000원 ☐ 월 50,000원 ③ 희망금액 ☐ 월 원 ※ 연 합계금액 60,000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에 한해 회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동이체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CMS출금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매월 20일 자동 출금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출금)

계좌이체 ※ 본인직접 입금	① 일반회원 연 60,000원 ② 특별회원 연 360,000원 ③ 평생회원 1,000,000원 (1회에 한함)
	●납부계좌: 농 협 097-01-174281 (예금주 : 안중근의사숭모회) 우리은행 009-177521-01-001 (예금주 : 안중근의사숭모회)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귀중

주 소 (04636)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문 의 Tel) 02-771-4195,6 Fax) 02-753-5033
e-mail patriot1909@gmail.com
홈페이지 http://www.patriot.or.kr

절취선

※ 회비납부(계좌이체 포함)시 신청서를 Fax 또는 e-mail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 일정

기념 · 추모행사	탄신 142주년 기념행사	9월 2일
	하얼빈의거 112주년 기념식	10월 26일
교육 · 학술사업	2021 안중근 청년 포럼	6월~10월
	우리기족 기념관 여행	7월/9월~11월
	안중근의사가 남긴 보물 탐구	9월~11월
	나도 큐레이터 '내 손안의 기념관'	9월~11월
	안중근의사에게 편지를 쓰다	9월~11월
	교원직무연수	8월 11일~13일
	대구가톨릭대 안중근연구소 공동 학술회의	11월 12일
	국제학술회의	11월 중
선양 · 홍보사업	교실 속 '안중근 독서토론'	연중
	제18회 안중근장학생 선발	9월~10월(9월 초 공지)
	소식지 발간(제52호)	12월

※ 상기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9.3㎝×41㎝,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보물 제569-3호 (지정일 : 1972.8.16.)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
연년세세화상사
세세연연인부동

해마다 계절 따라 같은 꽃이 피건만
해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같지 않네.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1
www.patriot.or.kr | ahnjunggeun.or.kr
TEL. 02) 771-4195, 3789-1016 / FAX. 02-753-5033

51
9 772671 817003
ISSN 2671-8170